SAEGAERO EDUCATION

Stage 10 Micro the Metal Dog

Cover Note & 본문 번역

Cover Note	
About this Book (책에 대하여)	- 다니엘은 엄마가 로봇 강아지를 사 주자 실망해요. 하지만 마이크로가 진짜 강아지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우자 다니엘은 마음을 바꾸고, 마이크로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강아지' 가 돼요.
Talking Points (이야기해 볼 부분)	- 제목을 함께 읽고 로봇 강아지가 진짜 강아지보다 더 나은지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가 자신의 생각에 이유를 대도록 격려해 주세요. - 5쪽을 함께 보세요. 왜 '왈'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을까요? 크게 읽어야 할 단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 아이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책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Read aloud (소리 내어 읽기)	- 엄마와 다니엘이 나오는 6쪽부터 7쪽을 함께 읽으세요. 6쪽 맨 윗줄의 '더 낫다' 라는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마이크로는 이 장 마지막에서 어떤 기분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fter reading (책을 읽고 나서)	- 16쪽부터 18쪽까지를 다시 읽고 강아지가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사람들이 예뻐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이야기해 보세요. - 함께 로봇 강아지를 디자인해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Story Book (본문번역)	
p3	1. 마이크로가 도착하다 생일에, 다니엘은 아침에 일어나 침대 옆에 놓인 큰 상자를 발견했어요. 꼭 개 집처럼 보였어요. "강아지다!" 다니엘이 외쳤어요. 다니엘은 오랫동안 강아지를 갖고 싶어 했어요. 다니엘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개 집의 문을 열었어요.
p4	그 안에 마이크로가 있었어요. 마이크로는 반짝이는 은색 몸에 노란색 눈을 빛냈어요. "진짜 강아지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안단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에는 진짜 강아지가 있으면 안 돼. 마이크로가 하는 것 좀 보렴."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는 마이크로를 향해 섰어요. "걸어봐." 엄마가 말했어요. 마이크로는 뻣뻣하고 뒤뚱뒤뚱한 다리로 카펫을 쿵쿵 걸어갔어요.
p5	"짖어봐." 엄마가 말했어요. 마이크로는 금속 입을 열었어요. 짖는 걸까요?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그만큼 조그맣고 약한 소리였어요. "왈! 왈! 왈! 왈! 왈!" "꼬리 흔들어봐." 엄마가 말했어요. 마이크로의 금속 꼬리는 이리 뻗었다 저리 뻗었다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난 진짜 강아지가 갖고 싶었는데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다니엘은 깊이 실망했어요.
p6	"마이크로가 진짜 강아지보다 더 낫단다." 엄마가 말했어요. "시끄럽거나 더럽지도 않아. 항상 시키는 대로 하고. 자, 무슨 명령이라도 해 봐." "네 집으로 들어가, 마이크로." 다니엘이 말했어요. 마이크로는 몸을 돌려 상자 속으로 다시 쿵쿵 들어갔어요. "착하기도 하지!" 엄마가 마이크로에게 말했어요. "넌 최고의 강아지로구나."
p7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어요. 다니엘은 "고마워요, 엄마."라고 말하고는 나머지 선물들을 열어봤어요. 낮이 지나고 밤이 지나도록 마이크로는 기다렸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다른 선물들만 가지고 놀았어요. 다니엘은 마이크로에게 한 번도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어두운 상자 속에서, 마이크로의 눈이 빛을 잃어갔어요.
p8	2. 마이크로가 생각하다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이 학교에 가려고 나섰을 때, 엄마는 다니엘에게 외쳤어요.

	"늦었다, 다니엘. 빨리 걸어!" 어두운 상자 속에서 마이크로는 '빨리 걸어'라는 말을 들었어요. 마이크로의 로봇 뇌가 윙 하고 돌아갔어요. 마이크로의 자그마한 노란색 눈이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났어요. 마이크로는 집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p9	마이크로는 묵직한 다리로 카펫을 가로질러 바삐 걸어갔어요. 마이크로는 열려 있는 유리문을 지났고 빨간 코가 난간에 부딪힌 뒤에야 멈췄어요. "쨍!" 다니엘의 엄마는 마이크로를 보지 못했어요. 엄마는 출근 준비에 바빴어요.
p10	마이크로는 7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공원의 녹색 나무와 잔디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복슬복슬한 네 다리의 무언가와 함께 뛰어다니는 것이 보였어요. 갑자기, 마이크로의 뇌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것은 진짜 강아지야.' 마이크로가 생각했어요.
p11	마이크로는 진짜 강아지들이 막대기와 공을 쫓아 뛰는 것을 보았어요. '진짜 강아지들이 놀이 하고 있어.' 마이크로가 생각했어요. 그 강아지들은 주인이 어두운 상자 속에 가두고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마이크로의 밝은 눈이 불꽃처럼 빛났어요. 로봇 뇌가 다시 윙 하고 돌아갔어요. 모든 생각을 동원해, 뇌는 점점 더 똑똑해졌어요.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p12	'저 밑에 내려가야지.' 마이크로가 결심했어요. '그리고 진짜 강아지들을 관찰할 거야. 어떻게 하면 진짜처럼 행동할 수 있는지 배울 거야. 그러면 다니엘이 나와 놀아줄 거야.' 하지만 어떻게 공원으로 갈까요? 마이크로는 높은 곳에 있었고 공원은 저 밑에 있었어요.
p13	3. 진짜 강아지들이 하는 것 마이크로는 돌아가서 소파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기회를 잡았어요. 다니엘의 엄마는 출근했고 마이크로는 몰래 빠져나와 엄마의 뒤를 따라갔어요. 마이크로는 엄마가 벽에 달린 버튼을 누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엄마는 열리는 문 사이로 사라졌어요. 마이크로의 로봇 눈이 반짝였어요. "저게 내려가는 길이야." 마이크로가 생각했어요.
p14	마이크로는 뒷발로 일어섰어요. 금속 코를 사용해서, 마이크로는 같은 버튼을 눌렀어요. 띵!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마이크로는 걸어 들어갔어요. 마이크로는 1층까지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의 사람들이 마이크로를 쳐다봤어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진 않았어요.
p15	공원에서 마이크로는 나무 뒤에 숨어 밖을 엿보았어요. 마이크로는 개의 주인들이 "이리와!"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어요. 진짜 강아지들은 그 말을 무시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개 주인이 "조용히 해!"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진짜 강아지들은 더 크게 짖었어요. "멍! 멍! 멍!"

p16	강아지들은 명령 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인들은 그래도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주인들은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고 귀 뒤를 긁어 주었어요. 마이크로는 생각했어요. '만약 진짜 강아지들이 하는 대로 한다면, 다니엘이 내 귀 뒤를 긁어 줄 거야.'
p17	마이크로는 여전히 배울 게 많았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는 스크러피라는 강아지를 따라갔어요. 스크러피는 정신없이 자신의 꼬리를 쫓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이크로는 뒷발로 일어서서 열린 창문을 들여다보았어요. 스크로피는 카펫을 씹었어요. 변기 물도 마셨어요.
p18	그러자 한 소녀가 들어오더니 스크러피의 목에 팔을 두르고 껴안았어요. "넌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강아지야." 소녀가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강아지가 되고 싶어.' 마이크로는 생각했고,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p19	4. "너 대체 왜 그러니?" 마이크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이크로는 엘리베이터에서 7층까지 올라왔어요. 다니엘의 엄마는 직장에서 돌아왔고 다니엘은 엄마의 뒤에 숨어 집 안으로 슬쩍 들어왔어요. "왜 상자 밖으로 나와 있니?" 다니엘의 엄마가 놀라서 말했어요. "네 집으로 다시 들어가렴."
p20	하지만 마이크로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마이크로는 금속 입을 벌렸어요. "멍! 멍! 멍!" 마이크로가 짖었어요. 진짜 강아지들이 어떻게 하는 지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의 엄마는 귀를 막았어요. "쉿! 이게 웬 소음이야!" 마이크로는 더 시끄럽게 짖었어요. "멍! 멍! 멍!" 마이크로는 자기 꼬리를 쫓으면서, 은색 형체가 될 때까지 원을 그리며 뱅뱅 돌았어요.
p21	마이크로는 다니엘의 엄마에게 뛰어올랐어요. "앉아!" 엄마가 말했어요. 마이크로는 무시하고 더 뛰어올랐어요. 금속 턱으로, 마이크로는 카펫을 한 움큼 물어뜯었어요. "당장 그만하지 못해!" 다니엘의 엄마가 소리쳤어요. "너 대체 왜 그러니? 착하게 굴어야지!"
p22	마이크로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마이크로는 스크러피가 하는 것을 본 그대로 변기에 머리를 박았어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빼내고 털어서 물을 사방에 튀겼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더 이상 못 참아!" 엄마가 말했어요. "저 멍청한 기계가 고장 난 게 틀림없어!"

p23	엄마는 마이크로를 집어들었어요. 엄마는 마이크로를 아파트 밖으로 데려와 쓰레기 버리는 곳에 던져버렸어요. '다니엘은 어차피 가지고 놀지도 않았으니, 그리워하지도 않을 거야.' 엄마가 생각했어요.
p24	찌그러지고 부딪힌 채, 마이크로는 쓰레기 봉지들과 함께 어두운 지하층에 놓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마이크로가 슬프게 생각했어요. '진짜 강아지들이 하는 대로 행동했는데.' 하지만 사랑받는 대신에, 마이크로는 쓰레기와 같이 버려졌어요.
p25	5. 마이크로 어디 있어요? 엄마 생각이 맞았어요. 다니엘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니엘은 마이크로가 없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카펫이 뜯겨나간 것은 발견했어요. "누가 저랬어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엄마는 말했어요. "그 개가 저랬어! 집에 왔더니 아주 난리가 났더구나! 짖고 원을 그리면서 돌고, 변기에 머리를 박기까지 했어."
p26	엄마는 말을 이었어요. "내가 '그만해!'라고 말했는데도 완전히 무시했어! 마치 스스로 생각하기라도 하는 듯이 말이야!" "정말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스스로 생각했다고요?" 처음으로, 다니엘은 마이크로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디 있어요?" 엄마는 조금 불편해 보였어요.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렸단다." 엄마가 말했어요.
p27	"뭐라고요!" 다니엘이 외쳤어요. "내 강아지를 버렸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생일 선물이었잖아요!" 다니엘은 문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어디 가니?" 엄마가 말했어요. "지하층에요. 마이크로 찾으러요!" 엄마는 이제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엄마는 다니엘의 뒤에서 외쳤어요. "네가 그 강아지를 원할지 몰랐어!"
p28	지하층에서 다니엘은 쓰레기 봉지 주위의 은색 빛을 보았어요. "마이크로!" 다니엘이 외쳤어요. 마이크로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이크로는 펄쩍 뛰어올라 다니엘의 얼굴을 금속 혓바닥으로 핥으려 했어요.
p29	다니엘은 마이크로를 집어 들고 밖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기다려." 다니엘이 마이크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이크로는 이미 공원으로 달려나가고 있었어요. 마이크로는 스크러피를 봤어요! 즐겁게 짖으면서, 마이크로는 묵직한 금속 다리로 스크러피를 향해 달려갔어요. 마이크로

	의 꼬리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p30	다니엘은 놀라서 지켜보았어요. 마이크로와 스크러피는 함께 뛰어다녔어요. 둘은 구멍을 팠어요. 갈매기를 쫓아다녔어요. 둘은 정말 즐겁게 있었어요. 다니엘은 막대기를 던졌어요. "물어와, 마이크로!" 다니엘이 외쳤어요. 당연히, 마이크로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마이크로는 빈 피자 상자를 물어와서 다니엘의 발 앞에 놓았어요. 다니엘은 씩 웃었어요. "바보 같은 강아지야."
p31	그리고 다니엘은 마이크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니엘은 마이크로의 빛나는 은색 귀 뒤를 긁어주었어요. "항상 강아지가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생겼어." 다니엘이 말했어요. 다니엘은 마이크로의 금속 목에 팔을 둘렀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강아지가 생겼어."
about the author 글쓴이의 말	금속 강아지 마이크로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고요? 한 잡지 기사에서 읽었어요. 기사에서는 노인들이 요양원에 갈 때, 애완견을 데려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슬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신 로봇 강아지를 만들 것이라고 해요. 나는 '로봇 강아지가 진짜 강아지만큼 좋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럴 수 없죠. 하지만, 금속 강아지 마이크로라면 얘기가 다르겠죠!